

평화 통일
주일 설교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이즈카 타쿠야 (飯塚拓也) 목사

(日本基督教団竜ヶ崎教会 / NCC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위원회 위원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2:14-15)

지난 6월24일 저녁에 도쿄 미나토구 불교의 浄土真宗光明寺를 주 장소로 온라인 ‘미얀마 기도와 연대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2월1일 국군의 쿠데타 이후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평화를 원하면서, 종교인들과 재일 미얀마인들의 기도 릴레이 모임이었습니다. 그 기도 릴레이에서 재일 미얀마인 승려가 기도한 내용이 내 마음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는 ‘붓다의 말씀 (숫타니 파타)’에 따른 기도였습니다. ‘숫타니 파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도하며, 앞으로 태어나려는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큰 것이라도, 중간 것도, 미세한 것도’ ...,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숫타니 파타의 신선함을 생각했지만, 그 기도의 계속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 지도록”.

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내 마음에 남아있어, 그 후에도 여러 번 이 기도를 되새김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쯤하며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23:34)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원수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잘 듣고 있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해’에 어떤 추상적인 울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을 위해’라고 말을 곱씹으면 이 ‘싫은 사람을 위한 기도’는 구체적인 것이 수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원수를 위해’에서 ‘싫은 사람을 위해’라고 심화하여 우리의 기도는 높은 가치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도 ‘원수를 위해’라면 기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싫은 사람을 위해’라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거부감이 솟아오르기... 합니다.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 말하는 ‘막힌 담’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막힌 담’이라고 하면, 높고 두꺼운 벽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팔레스타인의 벽’처럼 우리를 저쪽과 이쪽으로 나누어 서로 적대감을 부채질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막힌 담’은 혹시 그러한 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019년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여러분과 함께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 조선 기독교연맹과 한국교회, 그리고 재일대한기독교회 평화통일을 위한 집회의 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방북이었으며, 그러한 방북에 동행하였습니다.

7월28일 주일에는 조선기독교연맹 봉수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후에는 사전에 준비 작성한 ‘조선기독교연맹 여러분에게-사과 및 주님 안에서 화해를 바라며’를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1910년 강제병합 이후 36년 동안 탄압, 착취, 차별을 한 것, 또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국책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국책에 협력하며 스스로의 몸의 안전을 도모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받아 주어서 퇴장할 때에 큰 박수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가를 합창해 주셨습니다.

7월31일(수)에는 ‘관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전 한국 방문했을 때 관문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북쪽에서도 관문점을 방문하는 귀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군사 분계선인 38 선을 앞두고 위치한 건물의 2층에 안내되어 그 발코니에서 38선을 눈앞에 두고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기도를 일행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방문 기념으로 방명록에 메시지를 작성하여, ‘하루 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기를, 같은 민족이 막힌 담을 넘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함께 기쁨하고 함께 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관문점이 미래의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문점의 군사 분계선에는 벽은 고사하고 울타리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1개의 콘크리트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폭은 50cm, 높이는 단지 5cm 밖에 안되었습니다. 남과 북을 오가는 이 선을 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높이 5cm의 벽’이 하나의 민족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분단시키고 있습니다. 단지 <높이 5cm의 벽> !

예배소서의 ‘막힌’과 ‘담’은 신약성서에서는 여기서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방인을 ‘원수’의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힌 담이 적대감이 되어 우뚝 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내 자신 안에 있고, 또는 우리 자신이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동지방회

제72회 정기 총회 개최
신 회장에 이명총목사 선출

7월22일(목), 관동지방회 제72회 정기총회가 제일한국YMCA에서 개최되어, 개회에 배에는 지방회장 김병철목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엡6:10~11)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총대원 101명 중, 63명의 출석과 위임19명으로 개회가 된 후 회의에 들어가 새로운 지방회장에 이명총목사를 선출하는 등, 임원개선, 헌의안 심의, 지방 목사 위임식, 전도사 인허식 등을 하였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개선
 - 회 장 : 이명총목사(橫濱)
 - 부회장 : 김용소목사(西新井)、신대영장로(東京希望)
 - 서 기 : 김신야목사(橫須賀)
 - 부서기 : 이재익목사(新潟)
 - 회 계 : 박영원장로(品川)
 - 부회계 : 김영천장로(東京)
- (2) 관동지방회 규칙 개정의 건이 결의되어 개정위원 등은 임직원 회의에 일임.
- (3) 장로 증선 승인
 - 船橋教会2名、· 東京第一教会1名、· 横濱教会2名、· 東京教会5名
- (4) 예산안 승인 : 18,769,336円
- (5) 지방목사 위임식 : 김성태목사
- (6) 전도사 인허식 : 이은주(한사랑), 장성(한사랑)

케이노교회

제58회 정기 총회 개최
신 회장에 김명균목사를 선출

제58회 중부지방회 정기총회가 2021년 7월22일(木)、名古屋에서 개최되어 총대 31명 중 19명이 출석, 8명이 위임으로 개회되었다.

개회예배는 정수환목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20:20~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김형진목사(千曲비전전도소)의

선교사 가입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다.

주요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名古屋교회 장로2명 증원 선출 승인
- (2) 豊田메구미전도소 선교보조 승인
- (3) 무임소목사2명 기간연장(박태원목사, 김지일목사)승인
- (4) 四日市교회 해결위원회 설립을 승인
- (5) 2021년도 예산안 승인 : 12,882,083円
- (6) 임원선출
 - 회장 : 김명균목사(名古屋)
 - 부회장 : 최화식목사(長野)、김승정장로(豊橋)
 - 서기 : 고성목사(岐阜) · 부서기 : 허광섭목사(岡崎)
 - 회계 : 정인선장로(岐阜) · 부회계 : 김성숙장로(名古屋)
 - 회계감사 : 신숙희권사(名古屋)、황미경권사(豊田메구미)
- (7) 각 부(위원)장
 - 전도부 : 권윤일목사(浜松)
 - 교육부 : 이진용목사(豊田메구미)
 - 사회부 : 이대중장로(名古屋)
 - 고시부、전자미디어위원회、한일선교위원회: 김명균목사(名古屋)
 - 청년부 : 고성목사(岐阜)
 - 여성부 : 김진명장로(長野)
 - 재정부 : 정인선장로(岐阜)

(보고 : 고성목사)

증경총회장 양형춘목사 소천
재일대한기독교회葬으로 거행

제39회 총회기(1987년~1989년)의 총회장으로 역임하였던 양형춘목사가 90세의 일기로 지상의 생애를 마치고 지난 2021년7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석하고 있던 大阪교회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葬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故·양형춘목사는 1931년 함경북도 함흥에서 출생하여 1950년의 6.25전쟁 때에 남쪽으로 피난 와서 한국 신학대학,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196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신명여고 교목, 대구 청산교회를 개척 설립하였다.

1969년 동경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계기로 도일하여 横須賀교회에서 목회한 후, 1973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 받으면서 京都교회에서 20년간(1974년~1993년) 목회하였다.

그 후 미국장로교회의 청빙을 받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20년간 목회 한 후 2014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大阪교회를 출석하였다.

양상진목사는 고인의 장남이며, 정연원목사와 정재식목사는 고인의 사위다.

제3회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제56회 정기총회 일정 등을 변경

지난 7월18일, 제3회 임시상임위원회가 Zoom에 의한 온라인 회의로 가졌다. 2021년10월10일~12일, 동경교회에서 개최하시로 했던 제56회 정기총회 일정, 장소 등을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경하였다. 긴급으로 개최된 회의에는 보고 등은 생략하고 결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1) 제56회 정기총회는 2021년11월23일(목, 휴일) 10:00~18:00, 大阪教会에서 개최. (1일 총회)
- (2)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대면 정기총회가 곤란」하게 된 경우, 「온라인 정기총회」로 변경하는 판단과 결정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한다.
- (3) 임원개선을 위한 1차 선거는 사전 우편 선거를 하고, 총회 개최 당일에 2차 선거를 한다. 그러기 위해 총대원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는 명단을 인쇄해서 배포한다.
- (4) 제55회 제3회 상임위원회는 9월23일(목)13:00~17:00, 온라인으로 가지기로 하고, 회계 처리상, 회계보고가 늦어짐으로 결산 보고만을 위한 임시상임위원회를 10월10일(주일) 17:00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한다.

<알림>

●총회 사무국은 8월10일(화)~13일(금), 하계 휴가로 업무를 쉽니다.

2021年度 牧師・伝道師・宣教師考試
日程、場所変更のお知らせ

日 程 : 2021年9月22日 (水)

時 間 : 09:00~19:00

場 所 : 在日韓国基督教会館 (KCC)

大阪市生野区中川西2-6-10

(☎06-6731-6801)

전협 OB들의 서신 2 ※9월호에도 계속 올립니다

전협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오사카교회 김 애 리



청년 시절에 전국청년협의회(전협)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고교 졸업을 계기로 교회 생활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고 교회 생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협 전국 여름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각 지방에서 모여 온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존재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각자가 품고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在日에 대한 생각. 정답이 없는 질문에 진지하게 토론하고 상처를 입히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밤을 새워 진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그 인간 냄새가 나는 환경이 나에게 둘도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약자,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 정체성의 문제 등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논의했습니다. 또한 전협에서 과전받아 세계의 기독교 청년들과의 교류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인 청년과의 교제에서 처음 알게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협에 관계하지 않았으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몰랐을 것이고, 약자의 입장 등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이기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이 편했는지 모릅니다. 알게 되면서 부터 고통과 갈등을 안고 분노, 고민, 어떻게든 행동해 보자 해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 답을 얻고자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나의 청년 시절입니다. 전협이라고 하는 장소는 내 믿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결심을 가지게 한 곳입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간사이 청년 연합회와 전협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만난 청년들과의 관계는 벌써 30년이 되려합니다. 교회에서 거리를 두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청년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당시 만난 청년들과 지금도 1년에 한번 만날 정도이지만 만나면 웬지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당시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쿠마모토교회 최 임 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전협에 관여하게 된 것은, 2년의 재수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약 6년 동안이었습니다.

서남지방회에서 봄/가을 수양회를 가지고, 전협에서는 겨울의 지도자 연수회와 여름(대) 수양회, 준비하기 힘든 것은 다른 위원회에 맡겨 버리고 매우 즐거운 시간만 보냈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도 좋았지만, 그 이상으로 밤(부터 아침까지)의 교류회가 가장 즐거웠던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제일 한국인과 기독교 신자라는 저의 정체성은, 일본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많은 현상들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생의 큰 위기인 사춘기와 청년기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훌륭한

신 강사들의 지도와, 멋진 친구들 덕분에 큰 은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디에도 갚지 못한 자신이 불뚝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선배들 중에는 사회에 나가 직장과 전협의 활동을 정력적으로 하던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일에 쫓기게 되어, 사회에 나온 이후 전협에는 대부분 참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테마로, 쿠마모토와 미야자키현 경계에 위치한 산속에서 작은 일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쿠마모토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개미 피해를 입은 목사관뿐 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예배당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응급 위험 판정'의 표시가 붙었고, 외벽이 벗겨진 교회의 모습에 마음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신축이라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두려워 떨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매주 뺨을 꼬집으며 교회의 문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코로나 재난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전의, 그리고 새로운 동료 사역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전협의 추억

오사카교회 정 광 남



제가 청년회, 전협에 참가했던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때 전협의 주제에는 <在日を 고백하는 교회청년의 책임>, <시대적 사명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가장 작은 자와 함께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시 전협의 기관지였던 <동대>를 다

시 한 번 읽어보면, 그 때의 그리운 추억을 떠올립니다.

당시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행사 활동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아직 20대였던 저는 <在日>의 자신으로서, <교회청년>으로서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할지 이러한 고민속에 암중모색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개교회와 다른 지방회의 청년회원들과 만나 그곳에서 연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추억은 여름 전국 수양회였습니다. 3박 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흔하지 않은 제일동포 교회 청년과의 교류를 가지면서 개교회가 놓인 상황과 생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믿음을 통해 이어진 동료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在日로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교회와 청년회에 대한 생각과 마음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더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촌극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웠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양회에서 가진 시간 매우 짧았으며, 시간이 너무 아쉬워 매일 밤 밤을 새며 이야기 꽃을 나눌 정도였습니다. 당시 만났던 청년들과는 지금도 교류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중한 이어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인생에서 커다란 재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교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할 청년들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현상은 교회 전체가 안고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다양화되어 가는 와중에 유효한 수단은 청년들의 요구에 따른 비전 만들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 歳～70 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2021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 영 철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 히데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은 전세계를 뒤흔들고 경제적인 격차와 함께 생명의 격차까지도 두드러지게 하였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 모두가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는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격차 사회의 증폭을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격차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우리 일본기독교단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양교회)는 ‘화평하게 하는’ (마5:9)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받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난민·在日 외국인 인권에 관하여

일본정부는 올해 2월, 체류기간 초과자(오버스테이)와 입관 시설에서의 장기 수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의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3월, 나고야 입관에 수용 중이던 스리랑카인 여성의 사망사건 등의 수용자 인권 유린의 실태가 보도되면서, 시민 단체와 교회, 변호사회, 국제 인권 기관의 비판, 국회 앞에서의 농성 등, 많은 사람들의 항의 행동 때문에 입관법 개정안은 결국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률 1% 이하의 난민 인정 제도, 난민신청자와 체류 기간 초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입관 수용 제도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在日 코리안의 인권 획득을 위해 일본정부와 싸워온 우리 양교회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입관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로 인해 시민들은 군의 탄압을 받고 희생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얀마에 거액의 정부 개발 원조금(ODA)을 보내왔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기회를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보이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관하여>

‘절대 안전’ ‘경제적 필요’라는 ‘신화’로 포장되어 왔던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수습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들어가는 ALPS처리수를 일본 국내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희석하여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ALPS처리수는 트리튬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입니다. 이것을 바다에 투기하는 환경 파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쿠시마에는 지금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대지가 방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양교회는, 하루 속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지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금도 강요된 피폭으로 인해 고통받고,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합니다.

오키나와문제에 관하여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美中 대립과韓日 관계의 악화로 인해 오키나와가 군사 전략상 중요한 땅이라는 견해가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오키나와는 더 큰 부담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는 일본과 미국의 안전 보장 체제의 부담을 일본 내에서 분산시키는 방법에 관한 정치적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군사 태세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정부는 헤노코(辺野古) 신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지 주변의 소음 문제,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 더욱 심각해지는 격차 사회 문제 등 오키나와 사람들의 생활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며’ (헌법 제9조), 무력 행사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 실현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요구하고 기도합니다.

<헤이트스피치문제에 관하여>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지금, 눈에 보이는 헤이트스피치 행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익명의 인종 차별적 댓글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관련한 인종 차별적 댓글과 어느 화장품 회사 웹사이트에 인종차별적 문서가 게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에 관하여, 벌칙 규정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 민족·인종차별이 사라지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인권 의식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문제에 관하여>

우리 양교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의 죄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상기하며,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이 받아야 했던 크나큰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평화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근래의 한일 관계의 악화는, 아시아 평화 구축의 길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사회 속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배외주의와 역사 수정주의, 그리고 한반도 분단으로 위기적인 입장에 있는 한국의 내부 정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는 정치적 주장과 미디어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는 대화적인 평화 외교의 길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한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성실한 역사인식의 공유, 상호교류, 선교 협력의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어 번역: 김성태목사>